

瀟湘八景 (소상팔경)

李後白(이후백)

* 소상 팔경 : 작가가 송나라 송적(宋迪)의 소상팔경도(瀟湘八景圖)의 경치를 상상하며 지음.

< 1경 >

蒼梧山(창오산) 聖帝 魂(성제혼)이 구름조차 瀟湘(소상)의 느려
夜半(야반)의 흘러 드리 竹間雨(죽간우) 되온 뜻은
二妃(이비)의 千年 淚痕(천년 누흔)을 시서 볼까 흐노라.

창오산의 순 임금 넋이 구름 따라 소상에 내려
한 밤중에 비가 되어 대숲에 떨어지니
두 왕비 천년 된 눈물을 씻으려 함이런가.

- * 창오산 : 중국 호남성에 있는 산. 순 임금이 사냥하러 갔다가 죽은 곳이다.
- * 성제혼 : 순 임금의 죽은 넋
- * 소상 : 중국 호남성의 명승지인 동정호로 들어가는 소강(簫江)과 상강(湘江).
- * 이비 : 순 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(娥皇)과 여영(女英). 순 임금 죽자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함.
- * 죽간우 : 여기의 대나무는 '소상죽(瀟湘竹)'으로 순 임금의 두 아내의 서러운 눈물이 스며들어 얼룩졌다고 함.

< 2경 >

平沙(평사)의 落雁(낙안)하니 江村(강촌)의 日暮(일모) | 로다
漁船(어선)은 已歸(이귀)하고 白鷗(백구) | 다 잠 든 밤의
어디서 數聲 長笛(수성장적)이 잠 든 날을 썩오노고.

모래펄에 기러기 앉고 강촌에 해가 지니
고깃배는 돌아오고 갈매기도 잠든 밤에
어디서 긴 피리소리 잠든 나를 깨우는가.

< 3경 >

洞庭湖(동정호) 붉은 돌이 楚懷王(초회왕)의 녀시 되어
七百里(칠백리) 平湖水(평호수)의 다 비쳐여 보이는 뜻은
아마도 屈三閭(굴삼려)의 魚腹 忠魂(어복충혼)을 굽어볼까 흐노라.

동정호 밝은 달이 초회왕의 녀이 되어
칠백 리 동정호를 다 비쳐어 보이는 뜻은
아마도 굴원의 충성심을 굽어보려 함이런가.

- * 초회왕 : 초나라 의제(義帝). 항우가 초회왕을 높여 의제라 하고 살해함.
- * 굴삼려 어복충혼 : 굴원은 전국시대 초나라 사람으로 회왕을 섬겼으나, 강남에 귀양 갔다가 떡
라수(汨羅水)에 빠져죽어 고기밥이 되었는데 그 충성된 혼을 일컬음.

< 4경 >

瀟湘江(소상강) 細雨中(세우중)의 누역 샷갓 더 老翁(노옹)아
빈 비 흘니 저어 向(향)흐느니 어드메뇨
李白(이백)이 騎鯨飛上天(기경비상천)흐니 風月(풍월) 실너 가노라.

소상강 가랑비에 샷갓 쓴 저 늙은이
빈 배 혼자 저어 향하느니 어디인가.
이백이 하늘로 날았으니 대신 풍월 실러 가노라.

- * 누역 : 도롱이
- * 이백 기경비상천 : 당나라 이태백이 고래를 타고 하늘에 올랐다는 고사.

< 5경 >

峨眉山(아미산) 月半輪秋(월반윤추)와 赤壁江上(적벽강산) 無限景(무한경)을
蘇東坡(소동파) 李謫仙(이적선)이 못 다 놀고 남은 뜻은
後世(후세)에 날 곳흐 豪傑(호걸)이 다시 놀게 흐미로다.

아미산 가을 반달 적벽강의 끝없는 경치
소동파 이태백이 못 다 놀고 남겨둔 뜻은
후세에 나 같은 호걸이 다시 놀게 함이로다.

< 6경 >

舜(순)이 南巡狩(남순수)하샤 蒼梧野(창오야)의 崩(붕)하시니
南風詩(남풍시) 五絃琴(오현금)을 누 손의 傳(전)하신고
至今(지금)의 聞此聲(문차성)하니 傳此手(전차수)근가 하노라

순임금이 순행하다 창오에서 돌아가시니
남풍시 오현금을 누구에게 전하셨나.
거문고 지금 들리니 이 내 손에 전했으리.

- * 순 남순수 : 순 임금이 남쪽을 순행함.
- * 창오야 : 순 임금이 붕어했다는 곳.
- * 남풍시 오현금 : 남풍시는 순 임금이 지은 시. 오현금은 순임금이 남풍가를 타던 거문고.
- * 문차성 전차수 : 이 소리가 들리니 이 손에 전함.

< 7경 >

岳陽樓(악양루) 上上層(상상층)의 올라 洞庭湖(동정호) 굽어 보니
七百里(칠백리) 平湖水(평호수)의 君山(군산)이 半(반) 남아 즐겨세라
어디서 一葉 漁船(일엽어선)이 任去來(임거래) 하노고

악양루 높이 올라 동정호를 내려다보니
칠백 리 호수 위로 산들이 반이나 잠겼구나.
어디서 한 조각 고깃배들 흘러들어 가는구나.

- * 악양루 : 동정호에 면하고 있는 누각.

< 8경 >

黃鶴樓(황학루) 더 소리 듣고 姑蘇臺(고소대) 올라가니
寒山寺(한산사) 춘 바람의 醉(취)하 술이 다 씨거다
아히야 酒家 何處(주가하처)오 典衣沽酒(전의고주) 하오리라.

황학루서 피리 듣고 고소대에 올라가니
한산사 찬바람에 취한 술이 다 깨는구나
아이야 술집이 어디냐 옷 잡혀고 흠뻑 취하리라.

- * 황학루 : 중국 호북성에 있는 누각.
- * 고소대 : 중국 강소성에 있는 성(城)의 대(臺)
- * 한산사 : 중국 강소성의 절 이름.
- * 전의고주 : 옷을 전당하고 술을 삼.